

최익현과 이기운을 기린 문연사

문연사는 면암 최익현 선생과 굴암 이기운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이다. 어려운 시절 두 사람이 소중한 인연을 쌓아가는 모습은 후학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들의 우정이 닿은 이곳엔 새로운 도시인 신제주가 들어서 있다.



문연로 | 제주시 연동 312-1 ~ 제주시 연동 322-2(약 0.5km)

문송길 | 제주시 연동 303-35 ~ 제주시 연동 302-2(약 0.5km)

연동1길 | 제주시 연동 251-6 ~ 제주시 연동 252-14(약 0.5km)

신대로 | 제주시 연동 2500-5 ~ 제주시 연동 1375-5(약 1.7km)

삼무로 | 제주시 연동 251-6 ~ 제주시 연동 292-34(약 0.9km)

성두길 | 제주시 연동 291-101 ~ 제주시 연동 291-93(약 0.4km)

신랑로 | 제주시 연동 270-3 ~ 제주시 연동 1396-1(약 1.1km)

제원길 | 제주시 연동 261-3 ~ 제주시 연동 262-18(약 0.4km)

은남길 | 제주시 연동 292-34 ~ 제주시 연동 303-16(약 0.4km)

사장길 | 제주시 연동 304-3 ~ 제주시 연동 306-14(약 0.4km)

비월길 | 제주시 연동 314-1 ~ 제주시 연동 308-11(약 0.4km)

귀아랑길 | 제주시 연동 310-1 ~ 제주시 연동 311-46(약 0.4km)

문연로/문송길 | 문연사와 해송



문연사터

문연로는 문연사당터를 지나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문연사는 제주에 유배왔던 면암 최익현 선생과 굴암 이기온 선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웠던 사당이다. 최익현은 제주에 머무는 짧은 시간동안 제주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했다. 가장 많이 교류를 한 사람은 유학자 이기온이었다. 이기온은 유배인의 후손이라는 점과 위정척사 노선을 걸었던 기정진의 문하였기 때문에 최익현과 많은 공감대를 가질 수 있었다. 이기온의 호로 알려진 굴암은 면암 최익현과의 교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한다. 이기온은 연미마일에 칠봉서당을 마련해 제자들을 길러내었다.

하지만 칠봉서당이 화재로 불타버리자 그의 아들이 이응호가 문연서당을 세웠다. 그리고 이기온의 제자들은 문연사를 세워 최익현과 이기온을 추모하며 매년 제사를 지냈다. 이후 문연사는 도시개발로 인해 도로가 뚫리고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조설대가 있는 곳으로 옮겨졌다. 지금은 제주도청2청사 앞에 마련된 작은 표석만이 옛날 이곳이 문연사가 있던 곳임을 알리고 있다. 이 터에는 수령이 100년이 넘는 소나무와 팽나무들이 굽은 가지를 뻗으며 오랜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있다. 문연로와 만나는 **문송길**은 문연사터의 해송을 의미하는 이름이다.

연동1길/신대로 | 신제주

연동1길을 비롯한 시내의 길들은 연동의 지명을 반영한 것이다. 연동(蓮洞)은 예전에 연꽃 또는 잇꽃이라 부르던 마을이었다. 성두동, 귀아랑, 비월동, 도호동 등 곳곳에 여러 마을을 이루고 살았었다. 4·3사건으로 여러 마을이 사라지게 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다시 마을을 재건해서 삶의 터전을 지켜나갔다. 지금은 제주에서 가장 변화한 지역으로 발돋움했다.

신대로는 신제주입구교차로에서 신제주로터리를 거쳐 신시가지 입구로 이어지는 길이다. 신제주가 개발되면서 새롭게 큰길이 개설되었다는 의미로 부여된 이름이다. 1980년대 제주시내의 인구밀집 현상이 문제되자 인구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연동과 노형동을 중심

으로 한 신제주 도시개발이 추진됐다. 그래서 많은 주택들이 들어서고 제주도청을 비롯해 여러 기관이 신제주로 이동했다. 또 관광호텔들도 다수 들어서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신제주에 거처를 마련하고 관광을 즐기게 되었다. 이후 노형동 지역에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면서 도시가 점점 커지게 되었고, 오늘날 제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되었다.

삼무로 | 삼무공원

신제주로터리에서 신대로와 이어지는 **삼무로**는 인근의 삼무공원으로 통하는 길을 의미한다. 삼무공원이 있는 곳은 배두리오름이라 부르는 오름이다. 오름이라 부르기에는 낮은 높이지만 주택가와 가깝게 있어 주민들의 산책로와 쉼터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삼무공원

성두길 / 신광로 / 제원길 | 성두동과 신광마을

삼무공원 옆으로 나 있는 **성두길**은 성두동의 이름을 반영한 것이다. 배두리오름 주변에 있던 성두동(星斗洞)은 오름의 남쪽에 있던 바위가 북두칠성처럼 모여 있다는데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한다. 성두동은 4·3사건 때 가옥들이 모두 소실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재건을 했다. 이후 도시개발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다.

삼무공원의 서쪽을 지나는 **신광로**는 삼무공원 입구에서부터 그랜드호텔 사거리를 지나 연동 근린공원 앞까지 뻗어있다. 새롭고 밝은 길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길은 삼무공원 인근에 있던 신광마을 이름을 반영했다. 이 마을은 제주공항이 확장 되면서 땅을 내어주고 떠나야 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정착하면서 형성되었다고 한다. **신광로**와 이어지는 **제원길**은 인근에 있는 제원아파트를 지나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이 지역에서는 꽤 오래전에 세워진 아파트로 사람들은 이 일대를 제원이라 불렀다. **제원길**과 **신광로**가 만나는 지점은 과거에 사람들의 약속 장소로 많이 이용되기도 했다.

성두동과 신평마을은 1980년대 신제주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신평로를 중심으로 한 신제주에는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그래서 바오젠거리를 비롯한 다양한 특화 거리를 조성해서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은남길 / 사장길 | 은남벚과 사장벚

신제주로터리에서부터 신대로와 나란히 이어지는 **은남길**은 옛 지명인 은남벚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은남벚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근에 있던 밭을 부르던 지명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세워진 마을을 은남동이라고 한다. 은남의 뜻은 확실하지 않지만 한자로는 은남(隱南)이라 표기한다. **은남길** 남쪽으로 이어지는 길은 **사장길**이다. 과거에 이 주변에 활을 쏘던 활터가 있었다고 해서 사장벚이란 지명으로 불리는데 이 이름을 반영해 **사장길**이라 했다. 이곳에는 뛰어난 활솜씨를 갖고 있어 무과에 급제했던 서일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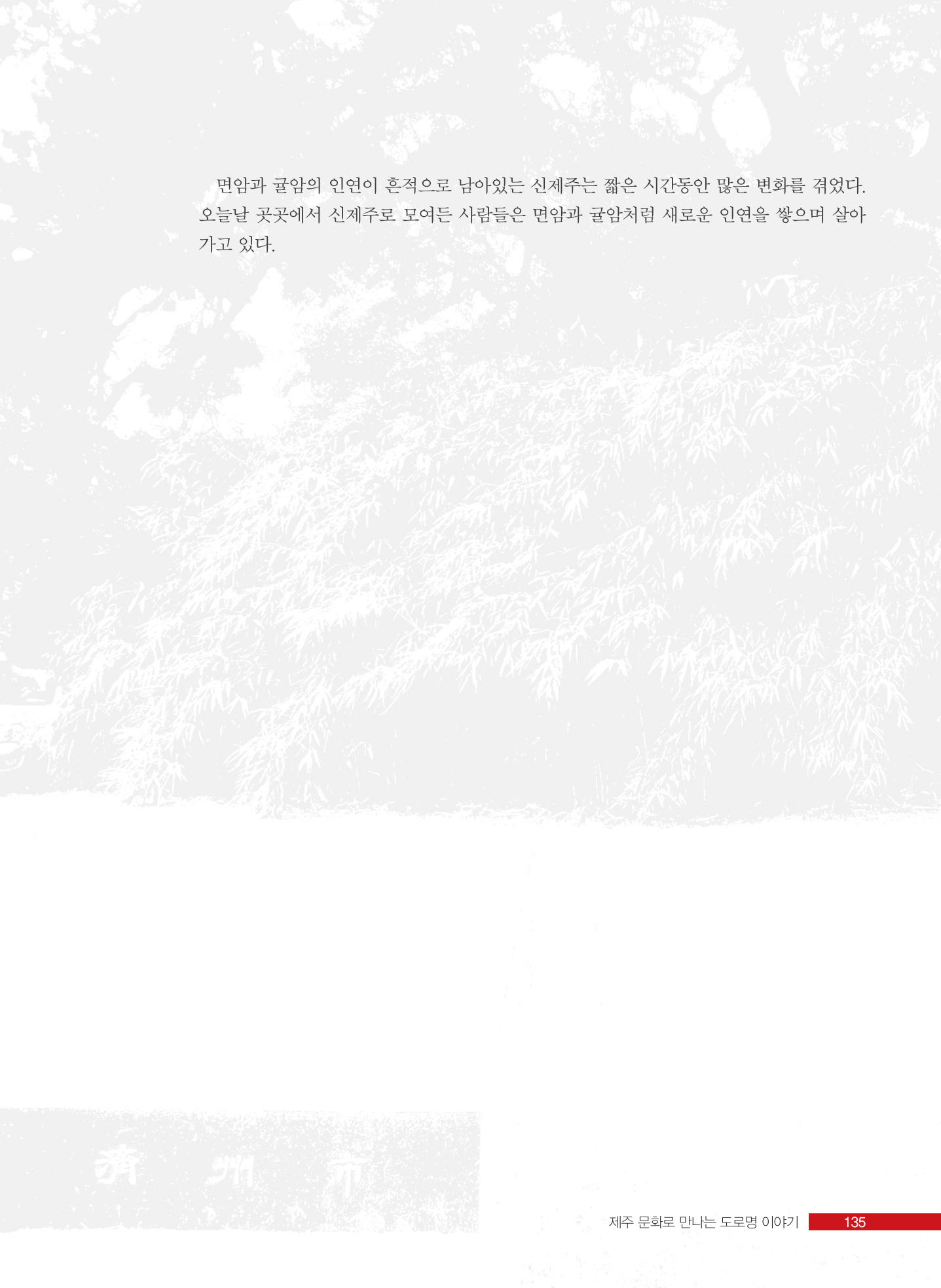
비월길 / 귀아랑길 | 비월동과 귀아랑마을



비월동 표지석

문송길 북쪽으로는 **비월길**이 이어진다. 비월길은 논다리로 불리던 마을이 있던 곳을 지난다. 논다리는 마을의 지형이 닭의 둥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었다고 한다. 4·3사건이 일어나자 이 마을은 폐동이 되었지만 이후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어 마을을 이루었다. 그 후에 한학을 배우러 다니던 어떤 사람이 마을의 지형이 닭이 나는 형세라는 이야기를 듣고 비월동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귀아랑길은 문송길 남쪽으로 이어진다. 귀아랑마을은 예부터 명당으로 알려진 곳이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제주에 음양으로 6대 명혈이 있는데 그 중 양지로 명당인 곳 중 하나가 바로 귀아랑마을이라고 한다. 그래서 과거급제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고, 이 마을에 집을 짓고 살면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면암과 굴암의 인연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신제주는 짧은 시간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오늘날 곳곳에서 신제주로 모여든 사람들은 면암과 굴암처럼 새로운 인연을 쌓으며 살아
가고 있다.

濟 州 市